

아파트단지의 단위세대별 인구 및 가족형구성에 관한 분석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nd Family Composition by the Unit Type in Apartment Houses

정사희*
Chung, Sa-Hee

최승희**
Choi, Seung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hanges of the population and family composition in apartment hous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of housing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pulation and family composition by the unit types. The population and family composition were studied by computer data base program to 11,000 residents of selection 4 apartments houses. The structure of the family types proved to be constant by the result of analyzing the 10 family types. If the family types of certain resident's groups are given, this study will be able to estimate population structure to them. The transi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 family composition changes to the unit types proved to be constant by the time. The distribution of manhood and matured children is tend to change according to how large the size of house is, and to change the structure of family composition.

Keywords : Apartment houses, Population Estimation, Family Composition Change

주요어 : 아파트 단지, 인구추계, 가족형 구성 변화

1. 서론

인구의 자연증가, 도시로의 인구이동, 핵가족화,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생활구조의 특성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근래 주택단지는 우리 인간생활을 위한 인위적 환경의 결합체로서 새로운 현대사회의 특성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근래 도시에서 주택단지의 대규모화에는 질적 주거환경조성의 요구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주택단지의 규모화에 따른 적정 공용시설 및 교육시설의 설치, 다양한 주택형의 설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공급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인구분포와 가족형 구성의 내용은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단지에서 공용시설 규모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초자료목적인 주택단지에서 공용시설 규모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인구분포 및 가족형 구성을 분석 제시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 앞서 기존 연구사례를 보면 지역시설과 인구추계에 관련한 이론을 볼 수 있는 바, 특히 일본 건축학계에서는 일정 지역의 인구구성과 가족형 구성을 분석한 내용이 공용시설의 규모 추정외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단지의 공용시설의 설치가 이제까지 관련법으로 단순히 전체 세대수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을 뿐, 단지특성이나 주택형별 세대규모에 의해 추출한 인구 구성에 따른 공급시설의 적정규모를 제시되지 못한 데에서 본 인구 및 가족형 구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여기서 인구의 추계는 인구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가족형구성의 분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이 주택단지의 인구변동 연령별 인구수, 그에 상관적인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단지내의 공용시설 규모추정이나 취학생 추계에 의해 학교시설이나 학급수 규모추정에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¹⁾.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인구 및 가족형 세대분포구성의 현황실태를 분석제시 함으로써, 장래 인구추계와 가족형 구성에 따른 적정 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재 4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주택규모에 따른 인구 및 가족형구성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수법에 의해 Computer

* 정희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1) 본 연구의 선행적 이론사례를 들면 일본의 건축계획학 이론에서 주택 단지의 인구 및 가족형분석, 자녀수추출과 학급시설 규모 등이 제시되고있다. 주택형별로 인구와 가족형구성등의 분석자료는 계획하는 주택단지의 인구와 공급시설의 대응관계를 추정함이 주된 내용이다, 문헌, 建築計劃學, (1)浦根一, 地域施設 總論, (3)長倉康彦, 地域施設 教育, 丸善(株), 東京, 1977

Program으로 통계 처리 되었다.

II.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주택단지 개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3개 도시에서 4개의 주택단지를 선정한 기준은 사회 경제적 측면의 주민계층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정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정해 졌으며, 먼저 주민계층은 중류층에 해당하는 범위로 정하였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에 해당되는 하류층과 상류층은 전체주민을 대표하는 점유 확률이 적고 중류층에 비해 특수한 상황이 다수 내포되어 있는 점에서 표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²⁾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선정지역인 광주의 화정단지과 운암단지, 전주의 효자동지, 대전의 가장단지를 살펴 보면, 상기에서 논한 주민계층이 중류층에 속하여 유사하고, 도시적 입지 특성이 기존 도심지를 다소 벗어난 도시내 신개발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상 단지들은 1980-1990년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의 계획과 실행으로 건설되었다. 대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지 확장의 일환으로 발생한 대규모 주택공급시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조사 분석의 대상을 다양한 주택규모 중에서 소규모 주택에 해당되는 2실형과 3실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주민계층 입지 여건 등의 단지특성을 분명히 하고, 일정한 주택면적규모를 한정하여 인구 및 가족형을 분석 함으로써, 같은 방법으로 행한 다른 대상단지의 특성과 주택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상호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단지로 선정된 광주의 운암 화정단지, 대전의 가장단지 전주의 효자동지에 대해서. 그 개요를 들면 <표 1>과 같다. 광주의 화정단지는 1982년도 건설된 총 2900세대, 운암단지는 1983년도 건설로 총 5600세대의 대규모단지 이며, 전주의 효자동지는 1984년도 건설된 총 1780세대, 대전의 가장단지는 1981년도 건설된 총 2580세대로 모두가 유사한 표준형에 속한다. 조사단지 주거자의 특징은 소속된 초등학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였

고, 단지별로 세대주의 직업, 학력, 수입정도를 비교 하였다 조사대상 4개단지의 내용을 보면 세대주에서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25-23%, 공무원 12-14%, 교원 25-29%, 상업 13-15%, 공업 6-7%, 농업 2%, 노동 4%, 무직 5%, 기타 1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지역이 도시인 관계로 공무원 회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농업 노동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형별 직업 학력 경제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단지의 주택형 평면구성의 특징을 들면 1) 임대2실형은 면적이 42-54 m²로 2실구성, LDK 구성관계는 2실의 방과 더불어 거실이 있고 부엌(K)이 있는 2LK형, 부엌만 있는 2DK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분양 2실형은 면적이 42-54 m²로 평면형을 들면2LK형, 2DK형, 2K형으로 나누어 지며, 특히 2LK형과 2DK형의 분포가 많은 편이다. 3) 분양3실형은 면적이 46-89 m²범위로 평면형은 3LK형과 L과 DK가 개방되어 있는 3LDK형L과 DK가 독립되어 있는 3L+DK형으로 분류되어 분포되어 있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먼저 내용을 추출 할 수 있는 조사표를 작성하고 가족형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된다. 본 조사표는 대상단지의 인구 및 가족형 구성의 분석 내용과 전산Computer 통계처리를 고려하여 작성 되었다.

조사항목은 대상단지의 속성 , 인구 및 가족형 구성, 거주경과와 주거형, 입주후 인구변동요인으로 정하여 작성 되었다. 분석대상에 따른 입력Data 항목을 들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본 연구는 조사에 의해 가족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 함으로, 세대를 단위로 하여 세대중의 혈연관계와 자녀의 연령으로써 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족형을 설정하였다. 가족형은 세대성원을 핵가족과 비핵가족으로 나누고, 핵가족에 대해서만 다시 세분하였다. 그래서 세대의 분류는 타인가족인 방계성원과 관련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단순가족(C)은 최연장 자녀의 연령을 3세단계로 구분하여 최연장 자녀를 15세까지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표 1. 조사대상 단지의 개요

주택형	임대 2실				분양 2실				분양 3실			
	운암	화정	가정	효자	운암	화정	가정	효자	운암	화정	가정	효자
주호규모	42 ~ 45 m ² (13평)				42 ~ 54 m ² (13~16평)				56 ~ 89 m ² (17~27평)			
실형	2K.2LK 2DK	2K 2LK	2K 2LK	2K.2LK 2DK	2LK 2DK	2K 2LK	2K 2LK	2LK 2DK	3LK3DK 3L아	3LK 3LDK	3LK 3LDK	3DK 3L아
건설년도	1983	1982	1981	1984	1983	1982	1981	1984	1983	1982	1981	1984
총세대수	1,740	200	500	460	2,065	1,905	770	855	1,795	795	1,310	475
조사세대수	1,740	200	500	460	2,065	1,905	770	855	1,795	795	1,310	475
분석세대수	1,405	169	429	387	1,617	1,662	699	732	1,547	740	1,187	445

2)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4, pp 88-98

표 2. 분석대상 및 입력DATA 항목

(1) 단지의 개요	(2) 인구 및 가족형 구성
1. 동,호 2. 단지명	1. 생년 월
3. 입주개시 년도(준공년)	2. 성별 (남, 여)
4. 주택형	3. 신분 (10분류)
(3) 거주 경과 및 주거형	(4) 입주후 인구변동 요인
1. 현 주거 입주 년월	1. 변동시기 (년, 월)
2. 전 주거 입주 년월	2. 변동이유 (8분류)
3. 전전 주거 입주년월	3. 신분 (10분류)
4. 주거형태 변화	4. 생년 월 5. 성별

단순가족은 총 7가지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핵가족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바. 핵가족이 가족의 제일 기본적인 단위로서 이루어졌고, 현대의 추세로써 전국도시의 가족형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의 성격 규모에 대한 표현이나 가족의 변화에 대한 추적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가족형설정은 기존의 연구사례에서 그 편리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온 방법이다. 가족형 설정의 분류는 다음 <표 3>과 같다.

본 인구조사는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법적인구, 즉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조사와 실제로 주거하는 실제인구, 즉 현재인구(de facto Population)조사가 있다. 따라서 상주인구조사와 현재인구조사의 결과치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거주확인이 필요한 현재인구조사의 번잡성에 비해서 상주인구조사는 대량의 세대집단과 가족인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속 간편하고, 인구 및 가족형에 대한 자료분석에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다.

통계방법은 조사대상단지의 전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로써, 동사무소의 주민등록기록의 집계에 의해 행하였다. 내용이 주민등록기록에 기재된 각 세대의 개인별 DATA내용을 입력하는 데 Station Computer 기기가 이용되었으

표 3. 가족형의 설정

분류		기호	
단순가족 (핵가족) (부부+자녀)	부부	Co	
	자녀중 최연장자의 연령	0 - 2세	Cb
		3 - 5세	Ci
		6 - 8세	Cj
		9 - 11세	Ck
		12 - 14세	Cs
		15세 이상	Ca
복합가족	CC		
결혼가족	B		
독신가족	S		
방계가족	R		

며, 총괄적인 DATA정리분석 방법은 Personal Computer 기를 이용한 Program 작업으로 집계 정리 되었다³⁾. 본 조사시기는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본조사와 보완조사가 이루어 졌다. 본 대상 단지의 총 조사세대는 총 12,870세대이며, 이상 4개단지의 전수조사에 의한 본 연구의 분석 세대수는 총 11,021세대이다.

III. 인구 및 가족형의 분석

1. 연령별 인구 구성의 분포현황

본 조사방법은 주민의 주민등록기록을 이용하여 Computer Program으로 처리되어, 연령별 남녀별로 분포현황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에 오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점점 단순가족형(핵가족)으로 변모 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단순한 가족형은 증가하고 복잡한 여러 종류의 가족구조 형태는 감소하는 경향을 밝고 있다⁴⁾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가족형을 세대(Generation)라는 관점에서 보아 1세대, 2세대, 3세대 가족형, 그리고 미혼가구, 해체형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연령별 분석에서 인구분포단위가 3세대단위와 5세대단위 방법이 있는바, 본 분석에서는 각기 분석자료의 이용 측면에 따라서 적용하였다. 연령별 인구분포는 컨틴캠 3분차법으로 불리는 3세대위 인구분포가 일반적이다⁵⁾. 그러나 100세대당 연령별 인구분포는 중간층 연령에서부터 5세대위로 적용하여 자료분석의 편리함과 간편성을 기하였다. 비교적 높은 분포수의 연령층을 들면 임대 2실형은 대체로 28세에서 32세 구간, 분양 2실형은 30세에서 35세 구간, 분양 3실형은 36세에서 40세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 2실형과 분양 2실형은 대체로 17세에서 22세 구간에서, 분양 3실형은 17세에서 25세 구간에서 전후 연령간의 분포보다 현저히 낮은 인구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일면은 이 연령층에서 핵가족(Conjugal family)으로 분화되기 전의 과도시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2실 보다는 분양 2실이 그리고 분양 2실 보다는 분양 3실의 인구수 분포현황이 성장한 연령층으로 이동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의 연령층을 보면 대체로 임대 2실, 분양 2실은 20대 후기에서 30대초기와 초등학교 취학생 구간까지가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분양 3실은 30대 중기에서 40대

3) 본 Program작업은 조사항목에 의해 입력된 자료를 분류 집계 하여 구성을 파악하였고, 구성별 요인분석 내용은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기법으로 추출되었다.

4)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서울, 1980, pp. 48-71

5) Henry S. Shryock, Jacob S. Siegel,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Vol2, U S Bureau of the Census. 1973, pp. 699-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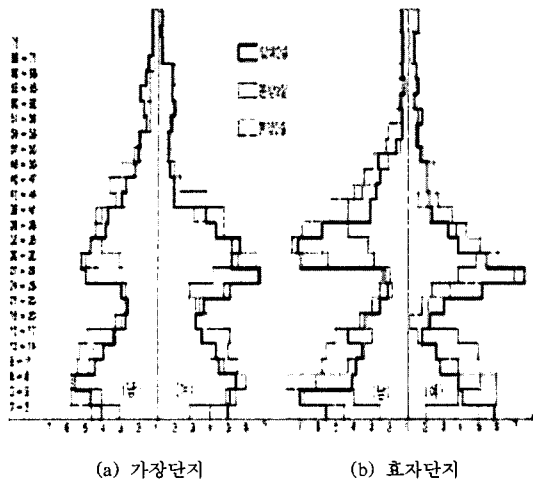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초기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령구간이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주택의 실 구성규모에 대응한 핵가족성의 일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4>는 주택형별 연령구성을 100세대당으로 집계한 내용으로 세대규모에 따른 인구구성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4개 단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주 효자단지의 인구 분포를 표기하였다. 100세대 당 인구구성을 4개 단지를 평균적으로 보면 임대 2실이 367명(3.67인/세

표 4. 100세대당 연령별 인구분포(효자단지) 단위: 명

연령	임대 2실		분양 2실		분양 3실	
	M	F	M	F	M	F
0-2	16	17	13	16	7	7
3-5	19	12	19	20	13	13
6-8	11	11	22	19	21	18
9-11	10	8	12	11	19	17
12-14	8	7	6	8	16	17
15-19	12	9	7	6	17	17
20-24	7	15	4	8	10	12
25-29	24	35	16	33	14	18
30-34	31	25	35	35	19	29
35-39	11	14	22	18	25	24
40-44	9	7	10	5	19	12
45-49	6	6	4	3	12	9
50-54	2	2	2	2	5	4
55-59	1	3	1	3	2	4
60-64	1	3	1	3	2	4
65-69	1	2	2	3	2	3
70-74	1	1	1	1	2	2
75 이상	0	1	0	2	2	2
합 계	172	177	178	194	207	209
평균인수	3.5		3.7		4.2	

대), 분양은 거의 같은 분포와 세대당 평균인구이지만, 대전의 가장단지는 100세대 당 2실은 375명(3.75인/세대), 분양 3실은 428명(4.28인/세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별로 보면 광주 화정단지와 운암단지, 전주의 효자 단지는 평균 인구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인 구구성에서 남·여의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여자> 약간 많은 수치이며, 대체로 25세-29세에서 여자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가족형별 인구 구성의 분석

가족형별 세대집단의 연령구성을 조사 한 바, 조사대상 4개단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양태로 나타난다. 즉 전체 적으로 100세대당 가족형별 3세대위 연령별 인구구성 분 포는 다음 <그림 2>의 내용이며, 4개단지중에서 대표적 으로 대전 가장단지를 표기한 것이다. 다른 3개 단지도 <그림 2>와 같이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Co는 대부분 24세에서 35세 사이가 많은 분포이며, 그 중 27세에 29세 사이가 현저하게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임대 2실, 분양 2실, 분양 3실에서 도 거의 같은 경향이다. 대상단지별로 보면 운암, 화정, 가장단지에서도 같은 경향이나, 효자단지의 임대 2실형 에서 특히 24세에서 26세 구간, 33세에서 35세구간이 전 체 인구의 41%가 되며, 임대 2실형에서 30에서 32세 사 이 구간에서 다른 연령구간보다 높은 분포의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분양 3실형은 분양 2실형보다 Co분포가 60세 전후 연 령구간에서 보다 높은 분포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주 택규모와 아직 경제력이 있는 연령구간과 대응하는 일면 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Cb는 남자는 27세에서 35세 사이 구간, 여자는 24에서 32세 구간이 앞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택형별로나 대상단지별 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녀가 0 세에서 2세에 대응되는 핵가족의 일면을 보여준다. Ci는 차이가 없이 남자는 30세와 35세사이 여자는 27세와 32 세 사이에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는 3 세-5세가 0세-2세 사이의 분포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다. Cj는 Ci와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이 남자는 33세에서 38세 사이에서 여자는 27세에서 35세 사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분포현상을 보인다. Ck는 주택형 별로 공통된 분포 현상으로써 남자는 36세에서 41세 사 이, 여자는 33세에서 38세 사이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 며, 자녀는 9세-11세 사이 구간이 가장 높고, 그 이하 구

6) 100세대당 으로 집계한 것은 주택형별로 아파트단지 전체인구 를 14세까지는 3세대위 15세부터는 5세대위로 구분하여 집계한 후 100세대당으로 환원한 것이다. 3세대위는 취학아동수 파악에 편리하고, 5세대위는 간편하다. 100세대 당의 분포는 세대당 평균 인수 추출이나 세대수규모에 따른 인구추정의 적용에 편리하여 제 시되는 표이다. 사례문헌, 浦根一, 建築計劃學1, 地域施設 總論, 丸 善 (株), 東京, 1977, pp 227-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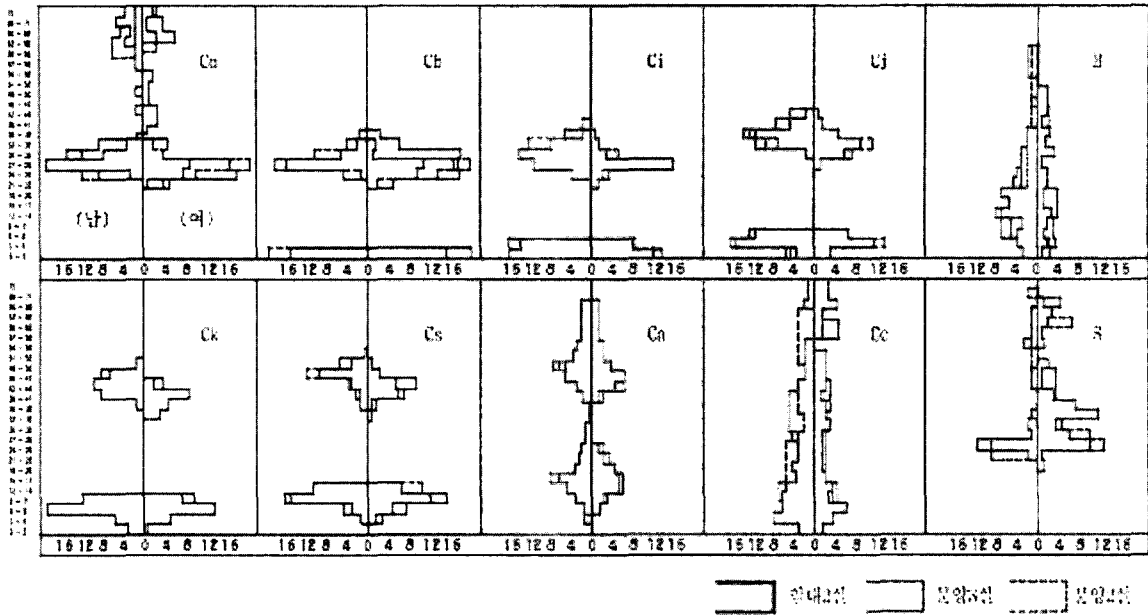


그림 2. 가족형별 인구 구성 (대전 가장단지)

간부터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다. Cs는 남자는 39세-44세 구간, 여자는 33세-41세 구간에서 대부분 분포되어 있으며, 자녀는 12세-14세 사이가 가장 높은 분포이며, 그 이하의 연령구간에서는 점점 낮아짐을 보인다. Ca는 자녀가 15세 이상인 세 대가족으로 12세-23세 사이 그리고 남자 42세-53세, 여자 39세-44세 사이가 집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Cc는 임대2실, 분양2실에서는 0세-14세 사이와 24세-41세 사이, 그리고 분양 3실에서는 3세-17세 사이와 27세-44세 사이가 집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노부모가 있는 3세대 가족이나 결혼초기에 속한 부부자녀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본다.

3. 가족형별 자녀수 분포

조사대상단지별 세대집단에 대해 가족형에 따른 자녀 수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녀수 분포는 주택형별로 나누어 제시 되므로 자녀수와 실면적과의 관계도 볼

수 있고, 주택형별 세대수규모에 따른 자녀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서 취학 아동수에 의한 학교시설 설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형에 따른 자녀수 분포 비율은 다음 <그림 3>과 같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수 분포에 대해서 주택형별로 보면 (1) 임대 2실형에서 운암단지 14.7%(0.55세대), 화정단지 14.8%(0.56인/세대), 효자단지 13.5%(0.44인/세대), 가장단지 11.1%(0.4인/세대) (2) 분양 2실형에서 운암단지 15.8%(0.59인/세대), 화정단지 16.4%(0.62인/세대), (3) 분양 3실형에서 운암단지 17.3%(0.74인/세대), 화정단지 15.5%(0.68인/대), 가장단지 17.8%(0.74인/세대), 효자단지는 15.4%(0.66인/세대)로 나타났다. 취학생수 구성비는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수에서 임대2실형은 14.0%(0.49인/세대), 분양 2실형은 16.6%(0.6인/세대), 분양3실형은 16.5%(0.7인/세대)이다. 여기서 주택형별로 보면 전체에 대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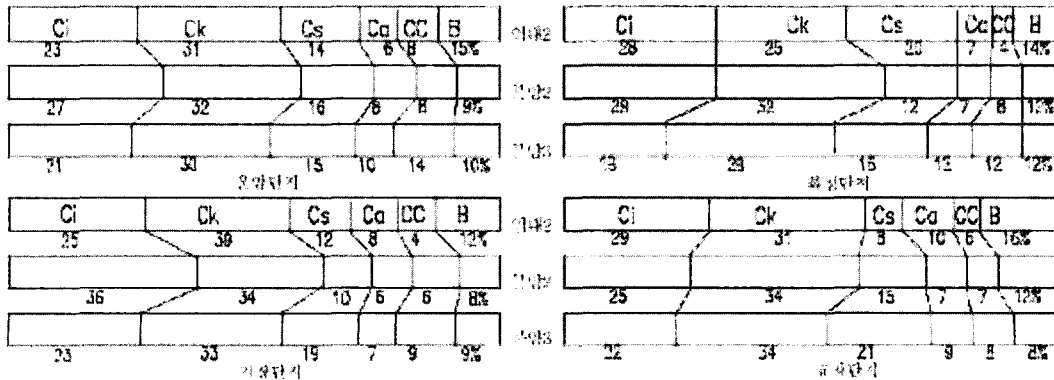


그림 3. 가족형별 자녀수 분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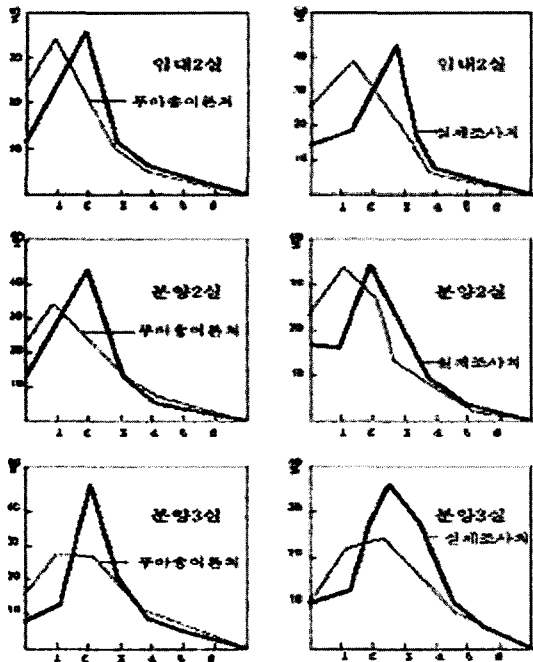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수별 세대수 구성분포 (%/명)

는 서로 비슷하지만 세대당 분포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세대당 취학생수는 주택규모가 클수록 대응하여 높은 분포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각 대상단지별로 실제 학교시설에 등록된 취학생수는 본 집계 Program 에 의한 취학생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암 1.2.3 단지는 총 5,600세대에 소속되는 단지내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3,617명으로 세대당 0,646 명이며, 이에 대해 조사세대수 4,571세대에 분석 추출된 취학생수는 2,889명으로 세대당 0.632명이다. (2) 화정단지는 총 2,900세대에 소속 학생수는 2,010명으로 세대당 0,69명이며, 조사 세대수 2,572세대에 추출된 취학생수는 1,607명으로 세대당 0.63명이다. (3) 가장 1.2단지는 총 2,580 세대에 소속 학생수는 1,699명으로 세대당 0,66명이며, 조사세대수 2,316세대에 추출된 취학생수는 1,503 명으로 세대당 0,65명이다.(4) 효자동지는 총 1,790세대에 소속 학생수는 1,056명으로 세대당 0.59명이며, 조사 세대수 1,566세대에 추출된 취학생수는 921명으로 세대 당 0,588명이다.

조사대상 단지에서 세대에서의 자녀수를 주택형별로 추출해 본 결과, 평균 세대인에 의해 집단의 인수분포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론공식인 푸아송 분포(Poisson ditribution)에 의한 수치와 실제 조사치가 자녀수에 따라 상이한 분포이거나 동일한 분포이다. 다음 <그림 4>는 자녀수별 세대수 분포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면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실제 조사치(그림 4의 실선)은 상당함에 비하여 푸아송분포 이론치(그림 4의 점선)은 약간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녀수가 3명인 경우와 그 이상에서는 분포치가 점점 거의 일

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방법은 대상지역별, 주택형 별로 평균가족인수를 알았을 때 이산확률 분포이론인 푸아송 분포치에 대표시켜 조사치가 없이도 자녀수나 세대수인 분포구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자녀수가 0인-2인에서 이론치와 실제치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 처럼, 평균 가족인 수를 알고서 자녀수 별로 대략의 세대수 규모에 대한 비율을 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된 것도 유효하리라 본다.

IV. 가족형의 변화분석

1. 단순가족형(Co-Ca)의 분포

가족형 중에 Co~Ca 구간을 부부 및 자녀로 이루어진 단순가족으로써 실규모에 따라 가족형 구성이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단순가족인 Co~Ca까지를 전체 100%로 하여 그 구성비를 주택형별로 비교하였으며, 다음 <그림 5>는 주택형별 단순가족 (Co~Ca)의 가족형 분포 내용이다. <그림 5>는 가장과 화정, 그리고 효자와 운암이 거의 유사하여 대표로 가장과 효자 단지를 표기한 것이다. 2실형들은 유사한 구성비이지만, 분양 3실에서 자녀가 장년층에 가까운 Ca에서는 높은 분포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택의 규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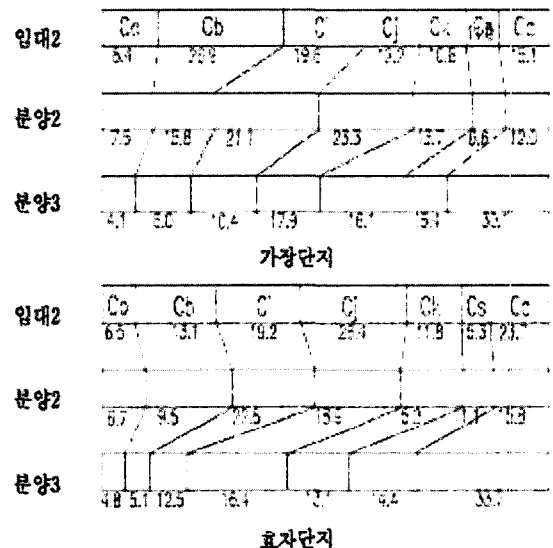


그림 5. 주택형별 단순가족형구성비

7) 푸아송분포(Poisson ditribution)란 수학의 확률통계분야에서 쓰는 공식으로, 특히 단위시간 또는 단위공간에서 일정한 정상적 발생이 아닌 우발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발생회수 분포를 나타내 준다. 인구추계 관련 연구자들이 이 분포식을 적용한 자녀수분포율이 실제 조사치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구 및 자녀수추계 방법에 도입한 것이다. 1세대당 평균자녀수를 추출하여 푸아송분포공식에 대입하면, 전체적인 자녀수별 세대수의 확률분포비율을 나타 낼수 있다. 浦根一, 전게서 참조, pp 237-239.

단순가족형의 구성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분양 3실에서는 Co를 비롯한 세대인이 적은 가족형은 적은 분포이고, 세대인이 많은 가족형에서 보다 높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임대 2실형은 대부분 13평(42.9 m²)이고, 분양 2실형은 13평-16평 (44.9-52.8 m²)으로써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 분양 3실형에서는 2실형에 비해 그 구성비에 있어서 보다 더 성장연령의 세대쪽으로 이동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 규모에 커짐에 따라서 자녀수가 많은 세대가 대응함을 보여준다.

2. 내주후 가족형의 변화

단위집단의 세대가 입주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가족형이 어떤 가족형으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가족형 설정의 기준을 고려하여 3년간으로 하였다. 일정한 세대집단의 가족형 변화에 대한 분석은 전출입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동태적인 방법에 의한 인구변동의 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가족유형을 제시한 기존 연구사례 내용중에서 가족주기변화를 중심으로 9개의 형태를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⁸⁾. 본 연구는 인구추계이기 때문에 가족인구추출에 알맞게 설정된 가족형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나타내고자 한다.

본 입주후의 가족형구성의 변화는 조사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 전에도 거주하였던 전세대를 취하여 3년 전 그때부터 3년 후의 가족형 변화를 평균적으로 집계한 비율이다. 거주경과 년수가 오래된 세대들이 많을 때에는 3년마다 한번 마다의 변화내용을 집계하여 비교하는 것도 좋으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주택에서 6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그 타당성이 희박하다.

다음 <표 5>는 운암단지의 3년간의 가족형 변화내용을 말한다. 다른 3개의 주택단지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제시 한다. 본 대상단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해온 세대수를 보면 임대 3실형에서 416세대, 분양 2실형에서 415세대, 분양 3실형에서 444세대이다. 이것은 실제 주택형별조사 분석 세대수에 있어서 각각 29.6%, 25.7%, 28.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효자단지는 임대 2실에서 166세대, 임대 2실에서 262세대, 임대 3실에서 159세대로써 각각 42.9%, 35.5%, 35.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Co를 보면 주택형단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해온 세대수를 보면 임대 3년후의 가족형 3실형에서 416세대, 분양 2실형에서 415세대, 분양 3실형에서 444세대이다. 이것은 실제 주택형별조사 분석 세대수에 있어서 각각 29.6%, 25.7%, 28.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효자단지는 임대 2실에서 166세대, 임대 2실에서

표 5. 3년간의 가족형 변화

(a) 임대2실형		단위:%(세대수)										
3년후의 가족형	Co	Cb	Ci	Cj	Ck	Cs	Ca	Cc	B	S	계	
3년전의 가족형	Co	29 (6)	66 (14)	-	-	-	-	-	5 (1)	-	100 (21)	
	Cb	-	-	92 (37)	-	-	-	8 (3)	-	-	100 (40)	
	Ci	-	-	-	98 (63)	-	-	-	2 (1)	-	100 (64)	
	Cj	-	-	-	-	96 (52)	-	-	4 (2)	-	100 (54)	
	Ck	-	-	-	-	-	87 (33)	3 (1)	7 (3)	3 (1)	100 (38)	
	Cs	-	-	-	-	-	-	96 (52)	4 (1)	-	100 (23)	
	Ca	3 (1)	-	-	-	-	-	92 (34)	5 (2)	-	100 (37)	
	Cc	-	-	-	2 (1)	2 (1)	2 (1)	-	88 (42)	2 (1)	4 (2)	100 (48)
	B	2 (1)	2 (1)	2 (1)	-	-	-	-	4 (2)	82 (37)	7 (3)	100 (45)
	S	6 (3)	6 (3)	-	-	-	-	-	11 (5)	-	70 (30)	100 (46)
(b) 분양2실형		단위:%(세대수)										
3년후의 가족형	Co	Cb	Ci	Cj	Ck	Cs	Ca	Cc	B	S	계	
3년전의 가족형	Co	32 (10)	68 (29)	-	-	-	-	-	-	-	100 (31)	
	Cb	-	-	95 (37)	-	-	-	-	5 (2)	-	100 (39)	
	Ci	-	-	-	96 (56)	-	-	2 (1)	-	2 (1)	100 (58)	
	Cj	2 (1)	-	-	-	94 (46)	-	-	2 (1)	2 (1)	100 (49)	
	Ck	-	-	-	-	-	92 (20)	4 (1)	4 (1)	-	100 (22)	
	Cs	-	-	-	-	-	-	92 (24)	8 (2)	-	100 (26)	
	Ca	2 (1)	-	-	-	-	-	90 (43)	4 (2)	4 (2)	100 (48)	
	Cc	-	-	2 (1)	6 (3)	6 (3)	-	-	82 (40)	-	4 (2)	100 (49)
	B	4 (2)	2 (1)	-	2 (1)	-	-	-	2 (1)	88 (45)	2 (1)	100 (51)
	S	5 (2)	10 (4)	-	2 (1)	-	2 (1)	-	7 (3)	-	74 (31)	100 (42)
(c) 분양3실형		단위:%(세대수)										
3년후의 가족형	Co	Cb	Ci	Cj	Ck	Cs	Ca	Cc	B	S	계	
3년전의 가족형	Co	32 (6)	58 (11)	-	-	-	-	3 (1)	3 (1)	-	100 (19)	
	Cb	-	-	97 (28)	-	-	-	-	3 (1)	-	100 (29)	
	Ci	-	-	-	98 (48)	-	-	2 (1)	-	-	100 (49)	
	Cj	-	-	-	-	93 (50)	3 (2)	2 (1)	2 (1)	-	100 (54)	
	Ck	-	-	-	-	-	91 (49)	7 (4)	7 (4)	2 (1)	100 (54)	
	Cs	-	-	-	-	-	-	96 (43)	2 (1)	2 (1)	100 (45)	
	Ca	1 (1)	-	-	-	1 (1)	-	89 (66)	5 (4)	3 (2)	1 (1)	100 (75)
	Cc	3 (1)	-	-	5 (2)	-	8 (3)	3 (1)	78 (30)	-	3 (1)	100 (38)
	B	-	2 (1)	-	-	2 (1)	3 (2)	3 (2)	-	88 (54)	2 (1)	100 (61)
	S	5 (1)	5 (1)	5 (1)	5 (1)	5 (1)	-	-	5 (1)	-	70 (14)	100 (20)

8) 윤종주,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제24호, 인구문제연구소, 1983, p92

262세대, 임대 3실에서 159세대로써 각각 42.9%, 35.5%, 35.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Co를 보면 주택형별, 즉 실 규모와 관계없이 Co가 Cb로 변화하는 율은 52%-68% 범위이며, 그대로 남아있는 율도 상당하여 28-40% 정도다. 보통 Co는 젊은 부부연령층으로 생각 되어 Cb로 거의 변화리라 예측되나, 전부가 그렇치않고 중년과 노령층이 있으며,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Cb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Co가 CC나 B, S로 변하는 경우가 약간 있는 부분은 아직 주택에 있어서 가족형의 예측이 어려운 일면을 보여준다. Cb에서 Cs구간을 보면 주택형별과 관계없이, 그리고 운암, 효자의 양 집단이 거의 유사하게 대부분이 92-97% 범위인Ci로 변하고 있다. 약간의 비율은 CC나 B로 변하나 2-8% 범위이며, 그 외는 극히 미약하거나 아주 없는 경우이다. Ca는 상당한 비율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향이다. 남아있는 비율이 약 74-92% 범위이다. 그 나머지는 CC와 B로 변하는 경우가 된다. 운암단지보다 효자단지에서 CC, B로 변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CC는 주택형이나 대상단지에 대해 거의 유사하게 상당한 비율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향이다. 그 범위는 78-88%이나, 그 나머지는 Co-Ca 그리고 B, S에도 약간씩 산재해 있는 경향이다. 이것은 CC의 가족구조 측면에서 실의 부족으로 오는 압박감으로부터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단순가족이나 B, S로 변화하는 경향이 많으리라 예측된다. B는 양측 집단 모두 82-88% 범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효자단지의 분양 2실에서만은 65%로써 다른 경우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비율은 CC와 마찬가지로 각 가족형에 2-6% 정도로 산재해 있는 분포로 변화하는 경향이다. S는 주택형이나 양측집단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 범위는 70-80%를 나타내고 있다. 그 나머지 20-30% 범위는 Co, Cb, CC, B로 나누어 변화되었다.

V. 결 론

근래 주택단지의 규모에 적절한 공용시설 등의 설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규모나 실제적인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수규모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단위세대별 정밀한 인구분포와 인구규모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단지 계획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형구성의 분포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광주 전주 대전 3개 도시에서 조사대상단지를 선정하였고, 주민등록기록을 이용한 전산Program 통계처리방법에 의해 분석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 3개도시 4개단지의 입지여건 거주자특성 주택형등의 단지특성에서, 모두가 거의 동일시기에 건설 되었고, 거주자 사회계층은 중류층으로서 직업

분포등이 유사하며, 주택형은 2실형과 3실형의 소규모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세대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일정지역의 인구 분석은 먼저 지역특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조사방법 Program을 통한 세대집단의 연령별 가족형별 인구구성과 100세대당의 인구분포 등이 분석되었는 바, 일정한 분포경향은 장차 이러한 단지특성에 속하는 인구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주택형에 따른 인구비교에서 임대 2실형과 분양 2실형은 거의 유사하지만, 분양 3실형은 보다 많은 인구분포를 나타내어, 주택실규모에 따라 그 인구수가 변화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세대집단의 자녀수 분포를 분석한 바, 가족형과 주택형에 따른 자녀수 분포를 추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포경향은 세대집단의 규모에 따른 학교시설이나 학급수 규모의 추정에 유효한 자료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거주자 입주 후에 경과년에 따른 가족형의 변화를 보면, 3년간에서 2실형에서는 가족수가 적은 Co-Cj 구간으로 변화하는 경향이나, 3실형에서는 변화하는 경향은 2실형보다 다소 미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경향은 인구변동의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이상 종합하면, 일정 지역에서 주민등록기록에 의한 전산 Program통계처리 조사와 분석방법은 주택단지의 세대집단에 대한 인구 및 가족형 구성분포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한다면 그 지역의 주택단지 계획시 주택형과 세대수규모가 주어졌을 때, 보다 정밀한 인구추정을 제시 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참 고 문 헌

1. 공세권 외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생활 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문제 연구소, 84-92.
2.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8-98.
3. 윤종주(1983),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인구문제논집, 제24호, 인구문제연구소, 92-94.
4. 이인수(2001), 노년기 주거상황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5. 홍인규·양우현(2002),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합주택 개발 가능성 검토 및 모델제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 13권 제8호.
6. 최재석(198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48-56.
7. 浦根一(1882), 建築計劃學1, 地域施設 總論, 丸善(株), 227-232.
8. 吉武泰水編(1977), 建築計劃學3, 地域施設 教育, 丸善(株), 126-129.
9. Henry S. Shryock, Jacob S. Siegel(1973),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Vol 2, U.S, Bureau of the Census. 699-702.